

익산시, 전국 최고 보육환경 조성 ‘박차’

육아지원센터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 운영
만 6개월 영아~초등 2학년 주·야간 보육 돌봄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선 전국 최초로 야간시간제 보육을 운영했다. 이후 큰 인기를 얻자 지난 2017년 휴일(토요일)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확대 시행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 사업’에 공모해 돌봄 관리자와 교사 인건비를 확보하는 등 초등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만 6개월 영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보육과 돌봄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통합 돌봄 시스템’을 갖췄다.

이 서비스는 만 6개월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간·야간,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초등학교 1~2학년은 주간·야간까지 운영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간 초등 돌봄 서비스는 무료(특별활동비 별도), 야간 초등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1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북에서 4번째로 설립된 익산육아센터는 전국 최고의 서비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학부모 지원 및 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특별활동 모습. <익산시 제공>

를 제공하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익산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보육환경 구축

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 블루베리 분양농장 올해도 인기

매주 600명 찾아 수확체험

순창군이 운영하는 블루베리 분양농장이 올해도 풍작을 맞아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블루베리 분양농장 180호를 운영해 매주 600명 이상이 순창을 방문해 블루베리 수확체험을 진행했으며 지난 3일 수확을 종료했다.

블루베리 분양 농장은 최근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주말에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블루베리 수확량은 1분양농장은 50kg, 2분양 장 40kg, 3분양 장 30kg 등 농장별로 30kg 이상을 수확하는 등 높은 수확량을 보였다.

블루베리 1분양농장 농장주 박모(광주시)씨는 “분양농장에서 수확한 블루베리를 통해 이웃 및 친지와 정을 나눴다”라면서 “또 순창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순창군 블루베리 분양 농장을 매년 연초에 분양하는데, 해가 갈수록 관심이 높아져 올해는 신청개시 10분 만에 분양 농장 홈페이지 서버가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창 관광자원을 더욱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kwangju.co.kr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남원시, 시청 앞 설치

남원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8월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4가지 색상으로 알리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시청 정문 앞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대기질 농도에 따라 파랑(좋음)과 녹색(보통), 노랑색(나쁨), 적색(매우나쁨) 등 4가지 색상으로 나타낸다.

미세먼지 신호등 색상은 파랑 0~30㎍/㎥과 녹색 31~80㎍/㎥, 노랑색 81~150㎍/㎥, 적색 151㎍/㎥ 이상 등일 때 표시된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신호등은 가장 가까운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총 10종의 대기오염 수치를 전송받는다. 대기질 상태를 수치로 나타내고, 농도에 따라 색상으로 표출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대기 상태를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과 함께 글씨로도 대기질 상태를 표시한다.

시는 미세먼지 신호등의 작동 여부와 시민들의 만족도, 미세먼지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확인해 추가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난 1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서밋벨 국립공원에서 열린 제24회 북미세계잼버리 폐영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함중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무대에 올라 세계 잼버리 대회를 이양받아 흔들고 있다. <전북도 제공>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 다짐

송하진 전북지사, 美 잼버리대회 폐영식 참석 대회기 받아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공식적으로 넘겨받고 차기 개최지로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함중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차기 개최지 대표 자격으로 지난 1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대회 폐영식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기를 넘겨받았다.

송 지사 등은 대회기를 함치게 흔들고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

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송 지사는 대회장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세계스카우트연맹 의장에게 전주 전통 한지로 만든 스카우트 항건(스카프)을 선물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 등은 폐영식 전 날 잼버리 현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한민국 리셉션’에 참석해 세계스카우트 주요 인사 등 400여명에게 새만금 잼버리를 알리고 우호를 다졌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각 기관단체 역

량을 결집하면 새만금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아마드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 기네스 기록(33.9km)을 가진 새만금의 산·돌·바다·갯벌을 활동장 삼아 도전과 개척의 스카우트 정신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세계 잼버리가 열린 새만금 현장에서 이달 9~12일 세계 50개국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캠퍼리(camporee·소규모 스카우트 대회)를 개최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성인병 예방 좋은 고창 ‘유황 수박’ 첫 출하

고창군은 지역 특산품인 ‘유황을 품은 고창수박’이 지난 2일 첫 출하됐다고 밝혔다.

유황수박은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시중에 판매된다.

이날 첫 출하된 유황수박은 광주광역시 두레청과, 서부청과 등 도매상으로 납품돼 소비자들에게 찾아간다.

고창 유황수박은 흥덕면 한마름 작목반 소속 20여 농가가 참여해 10ha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유황은 예로부터 면역체계 개선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냥 섭취할 수 없는 독성물질이다.

이후 과학적인 기술로 발효시킨 유황

재배 농산물은 우리 몸에 보약과도 같은 효과를 낸다.

특히 유황수박은 모종을 심기 전 토양에 토터리를 치고 거름과 함께 유황을 섞어 토대를 만든다.

또 관을 통해 물을 흡수하는 수박의 특성에 맞게 관을 이용해 수박뿌리로 유황 액비를 흡수하게 된다.

유황수박은 농민들의 끊임없는 연구 속에 식감과 당도가 탁월하며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높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헤아림’ 참가자 모집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헤아림’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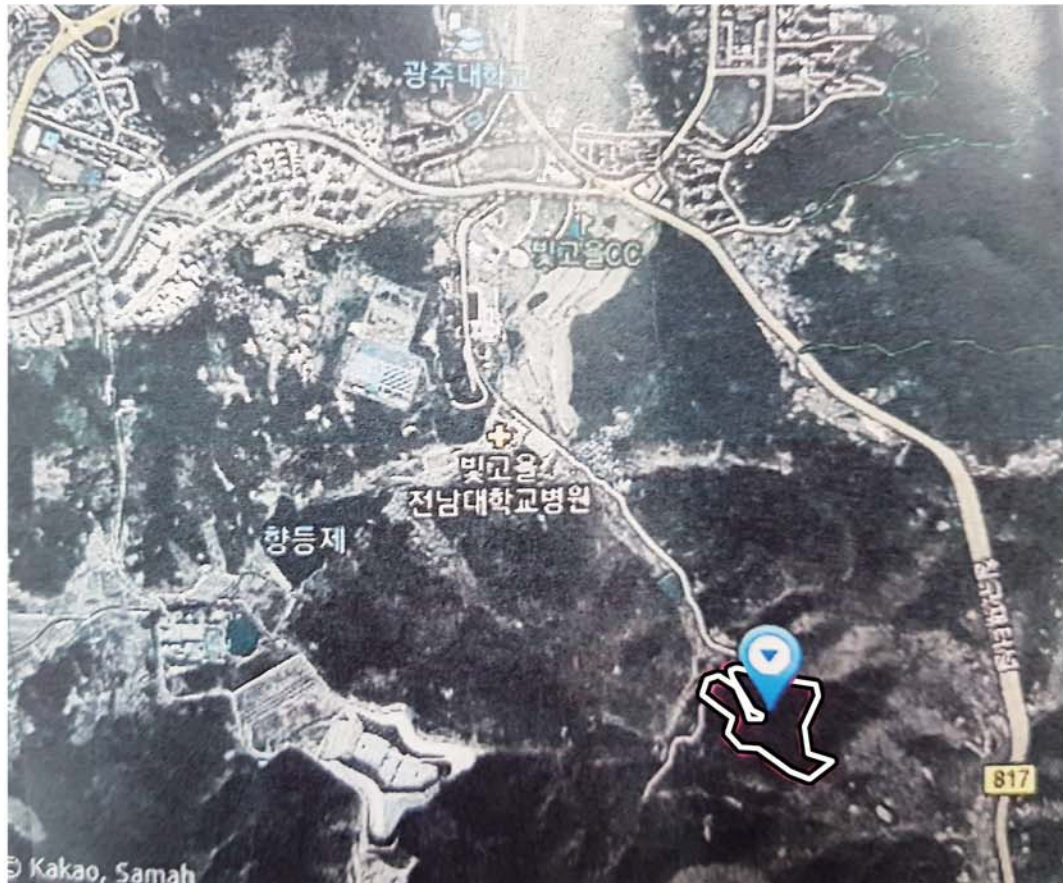
모집은 오는 23일까지다.

헤아림 가족 교실은 치매 환자 가족과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할을 강화해 치

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9월3일부터 10월1일까지 총 8회기에 걸쳐 주 2회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는 가족들이 헤아림 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치매 노인들을 위한 치매 환자 돌봄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